



뮤지컬 '광주' 출연진



ACC '시간을 질하는 사람'

연극·뮤지컬·전시·퍼포먼스... '오월 광주' 기억하기

5·18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을 기념하고 '광주정신'을 되돌아보는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민주·인권·평화의 오월 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가 광주 곳곳에서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ACC오월문화주간' 기간을 정해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를 갖고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와 전남문화재단 역시 오월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14일 오후 4시 아시아문화광장에서는 제51회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국제적 작가 레지나 호세 갈린의 퍼포먼스 '땅은 땅자를 감추지 않는다'가 펼쳐진다.

5·18 43주년 기념 문화행사 풍성 민주·인권·평화 '광주정신' 계승 동아시아 평화예술 현황 발전 모색 5월 광주 전역이 예술 무대로 변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ACC오월문화주간' 기간을 정해 '오월어머니의 노래', '시간을 질하는 사람', '수요극장: 나는 광주에 없었다' 공연을 준비했다.

ACC 수요극장은 '나는 광주에 없었다'를 17일 오후 7시 문화정보원 B3 극장3에 올린다. 지난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며 ACC에서 창·제작한 연극이다.

18일 오후 7시 예술극장 극장 2에서 열리는 '오월 어머니의 노래'는 오월 어머니들과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공연이다. 열다섯 어머니의 가슴속 이야기를 노래 등으로 제작했다. 올해는 원로 연극배우 박정자씨와 조선판스타에서 우수한 국악인 김산옥씨가 참여해 오월 어머니들의 절절한 사연이 더욱 잘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공연 '시간을 질하는 사람'은 17-21일 공연된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전지였던 전남도청과 그 건물에 얽힌 절망의 이야기다.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오월의 광주를 기록하다'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ACC 방문자서비스센터에서 일회용 카메라를 받은 후, 2023년 5월의 광주를 촬영한 뒤 반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6일부터 선착순이다. 참여자들에게는 현상, 인화한 사진 등을 제공하며, 사진은 ACC 콘텐츠로 기록·보관돼 전시와 온라인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가슴에 묻은 오월 이야기'도 있다. 오월 가족이 겪은 오월의 기억과 현재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오월 가족강연 프로그램'과 전문해설사와 옛 전남도청 일대를 둘러보는 '역사현장 탐방 프로그램'으로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는 특별운영 기간으로 선정해 매일 시민을 맞는다.

◇전남문화재단

전남문화재단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이해 남도소리극장에서 기획공연을 연다.

20일 오후 4시에 공연하는 전남도립국악단의 오라토리오 집체극 '봄날'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남도립국악단이 기획·제작한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평화와 깎지 손'이라는 주제로 '봄날'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무대에 올린다. 오라토리오 집체극에 쓰인 무용작품을 단독 무용극으로 새롭게 재창작한 무용극 '봄날'도 함께 선보인다. 또한, '바위섬', '직녀에게'로 널리 알려진 가수 김원중과 전남도립국악단 기악부의 협연 무대도 마련했다.

공연시간은 80분이며, 전체 관람 가능하다. 24일 오후 7시

공연하는 노래극 '오월'은 민중화가 흥성담의 연작판화 '5·18-새벽'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첫 번째 프로그램 샌드아트 '아무도 몰라'는 화가 흥성담의 오월판화 중 목판화 '암매장'에서 영감을 받아 흥성담의 시에 노래곡으로 창작한 샌드애니메이션 영상작품이다. 샌드아트로 화가 주홍이 참여했다.

두 번째 프로그램 '운동화비행기' 애니메이션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목숨을 잃은 두 소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흥성담 화가의 그림책에서 영감을 받은 영상작품이다. 애니메이션 '운동화비행기'는 전 세계 국제영화제에 출품해 현재 70여개의 영화제에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상영시간은 16분이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흥성담의 연작판화 '5·18-새벽'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곡을 토다밴드의 연주로 감상한다. 토다밴드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환경문제 등 사회에 울림을 주는 주제를 창작하고 연주하는 부산의 퓨전 록밴드이며, 이번 작품은 광주·전남에서 초연으로 공연된다. 공연시간은 90분이며, 전체 관람 가능하다.

◇창작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

사단법인 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가 주최·주관하는 5·18 43주년 기념 창작오라토리오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 공연이 12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5·18 43주년을 맞아 송고한 오월의 정신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광주시와 시립단체들이 힘과 뜻을 하나로 모아 준비한 공연이다. 오라토리오에는 오페라와 달리 무대와 의상을 갖추지 않고 공연하는 종교적 극음악을 가리키는데 이번 공연은 오페라 형식을 일부 가미한 새롭고 웅장한 무대로 채워진다. 작품은 총 13곡으로 구성됐으며 광주 대표적 민족문화가이자 시인인 고 문병관 선생의 시에, 중견 작곡가 김성훈 교수가 곡을 붙였다.

공연은 광주시립교향악단 지휘자 홍석원 예술감독의 지휘 아래 광주시립합창단과 순천시립합창단 그리고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참여한다. 합창을 이끄는 솔리스트와 배우의 열연도 공연의 묘미다. 매조소프라노 김정미, 바리톤 공병우, 테너 국윤중, 연극배우 강유미 등 각각의 솔리스트(소년, 구두땀이, 아내, 남편)는 소년, 구두땀이, 아내, 남편 등 광주시민을 상징하며 40여 년 전 오월 당시 젊음이, 힘입어 죽어간 이들을 대표한다.

◇뮤지컬 '광주'

아시아의 '레미제라블'로 호평을 받고 있는 뮤지컬 '광주' 시즌 4가 16-21일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 무대에 오른다.

뮤지컬 '광주'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이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소시민들의 뜨거웠던 투쟁을 '님을 위한 행진곡', '투쟁가' 등의 멜로디로 담은 감동의 대서사시다. 광주시가 지난 2019년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곡인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작품을 기획했다.

시즌 4에서는 뮤지컬 '광주'를 이끌었던 역대 배우들이 출연한다. '님을 위한 행진곡' 실제 주인공인 윤상원 열사를 모티브로 한 인물이자, 시민군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윤이건' 역에는 초연무대에 올랐던 김찬호가 캐스팅됐다. 자신의 신념에 투철한 약학교사이자 5·18 민주화운동의 한가운데 있었던 '문수경' 역에는 효은과 최지혜가 출연한다.

◇오월미술제

오월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미술 행사 2023 오월미술제도 '내 삶의 주인으로서 행동하라 그리고 참여하라!'를 슬로건으로 광주 곳곳에서 펼쳐진다.

무등갤러리, 미로센터, 5·18민주광장과 연대전시장 9곳에

서 제35회 오월전, 전문가 토크쇼, 광장(아고라)토크, 시민 참여프로그램,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13일 오후 1시 미로센터 라운지에서는 '행동하라! 이제는 미시적 폭력에 대항할 때'를 주제로 전문가 토크쇼가 열린다. 현대인들이 간과하는 미시적 폭력과 소소한 일상의 폭력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다. 신용철 부산민주공원 학예실장, 김정희 변호사, 윤수종 전남대 교수, 박성완 청년작가, 이현남 오월미술제 총감독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35회 오월전은 오는 18-24일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모인 19명 작가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의미'를 선보인다.

이밖에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되는 '오월미술, 시민과 만나다', 5·18기록관 기획전실에서 열리는 오월특별전 '들불의 기록, 생동의 공간으로', 5·18기념문화센터 '이준석 오월 시·판화전 '검은 방', 갤러리 생각상자 그림책 원화전 '아버지, 엄마의 오월이야기', 메이홀 '오월 어머니들의 그림농사', 비움 박물관·트라우마센터의 5·18특별기획전 '별이 된 자들을 위하여', 예술이백그라운드 청년특별전 '명백하다 봄', 오월미술관 이준석 오월 시·판화전 '칼과 꽃', 미로센터갤러리 '동구park 민주주의의 길' 등 9개 전시를 만날 수 있다.

◇광주시립미술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관, 국립5·18민주묘지 등에서 '2023 광주평화예술대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기념해 평화예술을 대주제로 삼아 분과토론, 주제발표 및 토론, 광주비엔날레 및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관람,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로 이어진다. 2023 광주평화예술대회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동아시아 평화예술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행사다.

17일 행사는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김형수(신동업문학관장·시인)의 '광주에서 다시 생각하는 평화예술'이라는 주제의 기조 발제부터 시작한다.

분과토론은 ▲제주 4·3 미술 ▲광주오월미술 ▲동아시아 평화예술 ▲생명평화와 예술 등 4개 분과로 구성 박경훈(작가), 배종민(미술사가), 흥성미(미술사가), 전호균(농사예술가) 등의 분과장을 중심으로 분과원들과 함께 각 주제에 맞추어 평화예술에 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주제 발제는 우디퀸(대만 C-Lab 큐레이터) '대만 2·28과 평화예술' 토미야마 카즈미(아키비스트·오키나와국제대학 강사)의 '평화학과 평화예술', 김동현(문학평론가·제주민예총 이사장)의 '제주4·3예술과 평화예술', 그리고 홍윤리(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원)의 '오월미술과 평화예술' 등이 있다. /최진화·이나라 기자



전남도립국악단 '봄날'



ACC '가슴에 묻은 오월 이야기' 역사현장 탐방.